

문화도시 수원

제 12 호



청누리

좌담

우리가 기록한 도시의 이야기
인문도시 아카이브 '기억할게, 고마웠어'

머물수록

시민들의 행복한 이동길
지하철 1호선에서 만나는 문화도시

전문가 칼럼

지역 문화예술의 주체를
찾는 여정

나의도시수원

'디드'라는
로컬브랜드를 만들기까지

우리가 기록한 도시의 이야기

인문도시 아카이브 '기억할게, 고마웠어'



‘문화도시 아카이브’는 수원의 지역과 개인의 기록을 지속적으로 아카이빙하여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수원의 도시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시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기록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재개발을 앞둔 ‘매탄주공 4·5단지’의 사라지는 기억들을 기록했다.

매탄주공 4·5단지는 수원시 주거형태 60%를 차지하는 아파트 중 1985년에 건축된 오래된 저층 아파트로 현재 이주 및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수원문화재단은 2022년 5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기업 (주)더페이퍼와 함께 ‘매탄주공 4·5단지’의 사라지는 기억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6월 시민 도시기록단을 모집해,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수원시여성가족관에서 열린 아카이브 전시 <기억할게, 고마웠어>까지 7개월의 시간을 함께했다.

‘도시기록단 아카이빙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는지요.

최서영 _____ 안녕하세요. 먼저 프로젝트 문화기획자로서 사업을 총괄해 진행한 더페이퍼의 최서영 대표입니다. 저 역시 수원시민이고, 수원의 지역 아카이브 잡지 ‘사이다’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카이브 사업에 관심이 많고,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상조 _____ 안녕하세요. 당시 매탄 4·5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이자 현재 영통2구역 조합장입니다. 사진 촬영이나 기록에 있어 협조할 부분 등을 협의하며 자료 등에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김정희 _____ 안녕하세요. 마을미디어 활동을 하는 드림미디어 대표이자 마을활동가로서 마을에서 일어나는



김정희

도시와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좋은 경험

일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는 일도 하고 수원마을공동체 미디어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민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도시기록단 아카이빙 프로젝트에서 공간팀 사진 기록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유나 _____ 안녕하세요. 매탄 4·5단지 주변에 사는 시민으로 제가 다니는 이동 동선에 매탄 4·5단지가 있어요.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함께 그곳을 걸어 다니기도 했고, 제가 2년 동안 작업실로 쓰기도 해서 그런지 더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민들을 만나 인터뷰를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참석자

- 최서영(문화기획자, 더페이퍼 대표)
- 이상조(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 김정희(도시기록단 시민기록자)
- 이유나(도시기록단 시민기록자)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최서영 수원의 근 100년사를 봤을 때 큰 역사적인 사건들은 기록되지만 정말 우리 삶의 이야기는 기록이 안 되었고, 또 그것이 결국 우리 수원의 어떤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개발된 것이 많거든요. 그런 공간들과 많은 것들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원의 정체성이 담긴 선경아파트나 오래된 벽산주공, 권선주공 등은 아무 기록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수원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그런 문제의식들을 고민하게 됐고, 수원의 이야기를 담아내겠다가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나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을 앞둔다는 건 그냥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공간적인 것도 없어지고 그들이 살아온 삶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을 시민기록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삶에 관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제일 먼저 사람들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사진들을 기록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야기들-구술을 기록했고, 전시를 위해 영상 작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김정희 저는 사진 기록 요청을 받았는데 이 공간의 뭘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같이 논의했을 때 일단은 아파트 자체 말고도 자연이 존재했어요. 나무, 풀, 새 등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또 아파트의 길에도 다양한 생활이 녹아있습니다. 할머니들의 삶이 다르고 아이들의 삶이 다른, 상가와 상인도 있고요. 어떤 하나의 큰 공동체인 거죠. 그들의 생태와 공간,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마을(도시) 기록은 왜 중요할까요?

김정희 이번 프로젝트에서 공간팀으로 기록에 참여하면서, 오랜 시간을 담은 그 공간만의 특이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공의 마크부터 시작해 손글씨로 쓴 아파트 내 안내표지판, 지하 깊숙이 숨겨 놓은듯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옛 난방시설, 옥상에서 정겨웠던 누군가의 오래된 항아리,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나무 반 건물 반의 숲을 연상시키던 전경들까지 기록해야 할 것이 아주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일상에서 생기는 이런 기억들이 사진이 아니면 나중에 다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많이 남기고 싶다는 의지가 컸어요. 이와 같은 기록이 아니면, 점차 기억 속에서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마을 기록이 더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이상조

우리가 사는 도시의 변화 과정과 현재를 기록하는 것



최서영

도시 기록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

최서영 시민기록자들의 사진과 원고 등을 받아서 이게 책으로 나왔을 때, 그 기록의 가치는 사실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섰던 집도, 방도, 쌓여있는 물건들도 모두 나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원시의 측면에서 보면 로컬의 어떤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개인에게는 사람에 따라 흥미롭게 볼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만난 주민분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공통적인 이야기가 "이곳을 기억할게. 그리고 고마웠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처럼 도시 기록은 학술적으로도, 지리학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상조 해당 단지에 사는 주민으로서, 조합원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아까운 게 많았습니다. 사실 옛날 게 나쁜 것만은 아닌데 조금만 불편하면 버리고 치우는 이런 논리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진짜 남기고 싶은 게 많았어요. 특히 수목 같은 주변 환경은 정말 남기고 싶었고, 뭔가는 남아 있는 기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료들을 모아두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분들이 계속 와서 사진을 찍고 하니 까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알고 보니 너무 좋은 취지였고 저희한테는 감사한 부분이지요. 개인적으로는 책을 더 보완해서 떠나는 주민들과 새로 들어올 주민들에게 이런 공동체 이야기를 한 권씩 나누고 싶어요.

정보, 보관의 아카이빙을 넘어 콘텐츠 활용과 라이브러리 활성화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이유나 좀 더 넓게 봐서 기관에서는 삶에 있어 자연스럽게 수집된 것들을 좀 더 아카이빙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태그를 누르면 관련 이미지들을 잔뜩 볼 수 있듯이 내가 일상에서 기록한 사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남겨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김정희 보태어 좀 더 양질의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일기처럼 쓰는 몇 줄이라도 이야기가 담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좀 더 살아있는 삶의 기록이고, 아카이빙이 되지 않을까 도시 기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서영 저는 먼저 수원시나 기관에서 전체적인 수원의 아카이브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은데, 결국 다 흩어져 없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수원의 흔적들을 여기저기 기록은 했는데 사진도 제출하고 책도 엮었는데,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면 어디 있었는지도 잊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카이브 계획을 한 5~10년 정도 세우고 1년씩 차근차근 진행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경기도 메모리라는 플랫폼처럼 수원시도 아카이브를 모을 수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유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도록

마을 기록사업에 참여하시면서 소감, 어떤 가치를 느끼셨나요? (아카이빙 프로젝트 기획자로서, 시민기록자로서, 마을 주민으로서)

최서영 역사를 기록한다는 게, 아카이브 사업이라는 것이 뭔가 바로 성과가 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아카이빙 사업을 2012년부터 진행했는데, 대부분 공공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 왔기 때문에 사실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시민기록자가 없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수원의 시민기록자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내가 사는 수원의 이야기를 직접 아카이빙할 수 있어서 더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유나 얼마 전 2월 19일에 매탄 4·5단지 동네를 지나는데, 이제 막바지 이사를 진행하느라 차가 정말 많더라고요. 거기 상가에 빵집도 있는데, 3월 5일까지만 한다고 써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이제 이 공간이 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살지도 않았는데 뭔가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이라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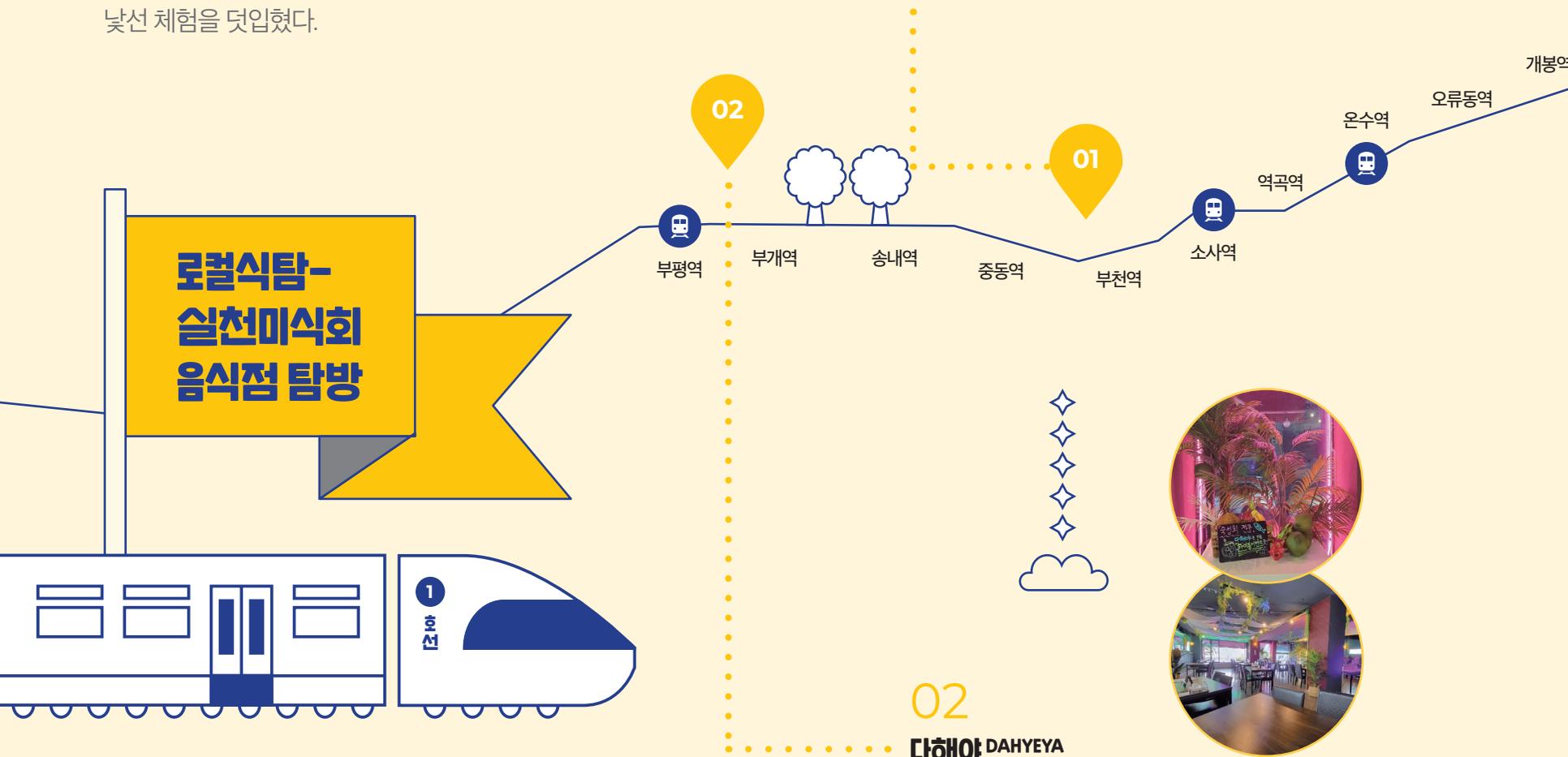
김정희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사진만 찍은 것과 사는 사람이 감정을 담아서 찍는 것과는 분명 다를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것이 아닌 담아내는 이야기들, 같은 곳을 찍더라도 포인트 등 시선들이 다를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감정들을 남기고 싶어서 끝까지 사업에 참여했어요. 도시와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문화도시 아카이브-도시기록단 아카이빙 프로젝트에 도시기록자로 참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좋은 경험이었고 의미가 큼니다.

이상조 우리가 사는 도시의 변화 과정과 현재를 기록하는 것, 지금을 살아가는 기성세대가 마땅히 간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것만이 아닌 옛것에 대한 중요함, 그 가치를 알아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매탄 4·5단지의 기록을 남겨주셔서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화 1호선 로컬식탐-미식랭가이드

시민들의 행복한 이동길 지하철 1호선에서 만나는 문화도시

익숙한 장소에서 만나는 새로운 문화적 체험은 문화예술에 목마른 시민들에게 낯설지만, 친근한 또 다른 설렘을 가져온다.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원문화재단은 지하철 1호선 역사에서 펼쳐지는 '문화 1호선 프로젝트'로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 낯선 체험을 덧입혔다.



지하철 1호선에서 펼쳐진 문화 1호선 프로젝트

수원역에서 만나는 지하철 1호선은 1970~80년대 산업화 과정을 함께한 오래된 노선이다. 그래서 인지 1호선을 따라 형성된 도시들 역시 오랜 세월 축적된 문화를 통해 나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중 수원을 비롯한 영등포, 부천, 부평 이 네 곳은 1호선 주변에 형성된 도시이자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이 4개 도시가 2022년 말 한국철도공사(KORAIL)와 협력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바로 '문화 1호선 프로젝트'다. '문화 1호선'은 수원, 영등포, 부천, 부평의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지하철이 문화를 실어 나르는 곳이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각 도시가 문화로 가득한 곳임을 알리는 사업이다.

가장 먼저 '문화 1호선 프로젝트'는 "좋은 일이 있어요"라는 문장을 핵심 슬로건으로 기획해 다양한 공동캠페인을 진행했다. 도시별 주요 역사인 수원역, 영등포역, 부천역, 부평역에서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문화도시를 알리고 각 도시의 음식을 소개하는 안내 방송을 송출했다. 또 주요 역사를 경유하는 지하철 안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운영했다. 12월에는 '문화 1호선, 1974'를 주제로 드로잉 작품을 문화도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전시했으며, '문화 1호선, 1974'는 시민들이 직접 지하철을 다니며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프로젝트로 진행됐다.



01 무화과식당 KITCHEN FIG

여행을 좋아하는 사진작가 부부가 운영하는 소박한 조식당. 여행을 다니며 경험했던 다양한 식재료와 맛을 토대로 요리를 연구하며, 매달 뷔페 구성이 바뀐다. 좋은 재료에서 좋은 맛이 나온다고 믿고 식재료를 항상 직접 눈으로 보고 장을 보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따뜻한 공간.

문의 070-7303-0128
주소 경기 부천시 신흥로238번길 26
사이트 www.instagram.com/kitchen_fig
주요 메뉴 성인 17900원, 초등생 11,900원, 유아 7,000원(24개월 미만 무료)
*이용시간 70분
운영시간 09:00~14:30(LAST ORDER 13:30, 휴무일 매주 월, 화, 수)

02 다해야 DAHYEYA

사랑하는 어머니께 물려받은 가게에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붙여 운영하는 숙성횡집. 동해, 서해, 남해가 모이는 곳에 있는 가상의 섬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다. 매일 새벽시장을 다니며 신선한 해산물을 공수해 가성비 있게 제공하며 어종마다 숙성 방법, 숙성 시간을 다르게 해 각각의 감칠맛을 끌어내는 진심으로 운영하는 곳. 즐기며 일하는 대표님과 직원들의 친근한 이벤트는 서비스!

문의 032-528-3336
주소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77번길 23, 부원빌딩 1층
사이트 www.instagram.com/dahyeya
주요 메뉴 다해모듬 2인 50,000원, 가리비 명란구이 12,000원, 강릉해물라면 12,000원
운영시간 16:00~24:00(휴무일 매주 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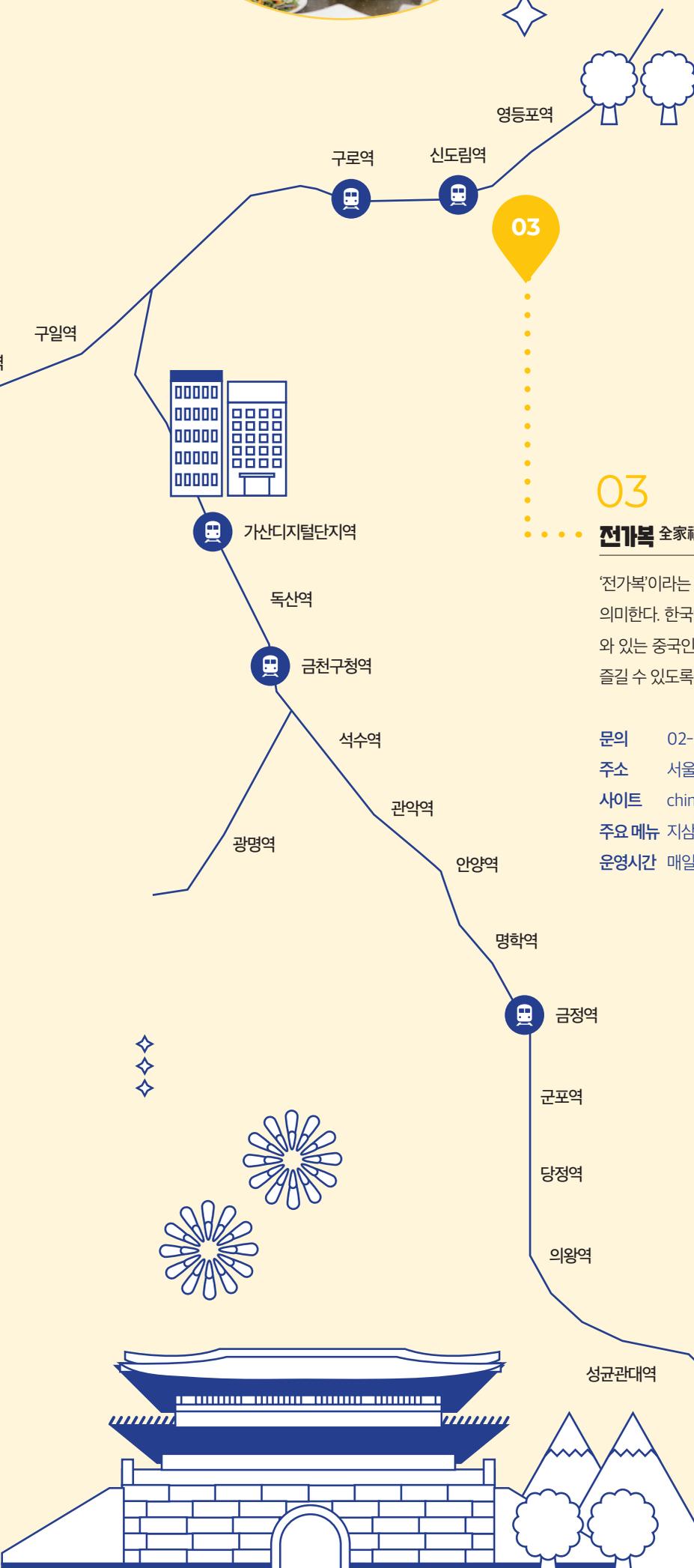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지역 음식점 여행, 로컬식탐

수원문화재단은 '문화 1호선'의 공동캠페인에 이어 수원역 인근 지역의 특성을 담은 '로컬식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로컬식탐'은 로컬음식점 창업을 준비하거나 영업 중인 청년들과 함께 4개 문화도시의 로컬음식점을 다니며, 음식점 운영자가 지역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 로컬음식점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로컬식탐>은 먹자골목이 활성화된 수원역에서 청년푸드창업을 지원하는 수원도시재단 매산동현장지원센터와 연계해 함께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위해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는 '로컬식탐 실천미식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로컬음식점 탐방 여행을 기획했다. 음식에 로컬과 수원을 어떻게 담아내고 실천하는지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며, 각자가 만든 로컬 음식을 나누고 여행 과정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로컬식탐 실천미식회' 참가자는 11월 29일(화)까지 문화도시 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아 진행되었다.

1호선이 지역을 잇고 문화의 심터가 되기를

수원문화재단은 '문화 1호선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에서 고단한 이동을 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1호선이 잠깐의 심터가 될 수 있기를, 또 1호선으로 연결된 문화도시와 지역성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1974년 개통 이후 가장 오래 시민들의 발이 되어온 1호선에 대한 관심 역시 늘어나기를 바라며, 이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더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앞으로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면서 서로 다른 도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함께 즐길 수 있길 바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수원의 특별한 문화와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



03

03 전가복 全家福

'전가복'이라는 중국요리가 있지만 요리 이름에서 따온 것이 아닌, 단어로써 '가족', '가족사진'을 의미한다. 한국인, 중국인 모두가 와서 가족처럼 행복하게 드시고 가시라는 뜻이다.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에게는 따뜻한 마음과 위로를, 한국인들에게는 한국에서도 본토 중국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동북요리의 진수를 제공하는 곳.

문의 02-845-8887
주소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60 타워 오피스텔
사이트 chinafood.modoo.at
주요 메뉴 지삼선 18,000원, 꿩보러우 20,000원, 경장육사 22,000원
운영시간 매일 11:00~03:00(휴무일 없음)



04 올라메히고 HOLA! MEXICO

수원 항공동에서 수원 토박이가 운영하는 멕시코 음식점. 멕시코 현지인분들께도 인정받았다는 로컬의 맛! 멕시코에서 직접 사 온 인테리어 소품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곳이다. 서울, 부산, 평택 등 유명하다는 멕시코 음식점을 다 가봤지만 올라메히고의 '까르티나스' 만한 것이 없다고 하니 꼭 드셔보시길.

문의 031-257-1231
주소 수원시 팔달구 신흥로23번길 59
사이트 www.instagram.com/hola_mexico_suwon
주요 메뉴 까르티나스 타코 2p 8,000원, 초리소 퀘사디아 12,000원, 파스타메히고 13,000원
운영시간 12:00~21:00
(BREAK TIME 15:30~17:00 / LAST ORDER 14:30, 휴무일 매주 화요일)



수원대학교 아카이브 프로젝트 <수상한 만남>

지역 문화예술의

주체를 찾는 여정

‘수원대학교 아카이브 프로젝트 <수상한 만남>’은 수원의 문화예술영역에서 주체를 발굴하고 만나며 수원 문화예술 영역 안의 다양한 주체들과 지역의 이슈들에 대한 기록을 담아가는 프로젝트다.

‘사람’을 찾습니다

‘모든 일은 저장되어있지 않은 부재중 전화에 대한 회신에서 시작되었다.’ 미스터리 스텔러의 도입부에 어울리는 이 문장이 ‘수원대학교 아카이브 프로젝트 <수상한 만남>’의 출발이었다. 부재중 전화는 ‘수원대학교’ 총괄기획자인 백현주 선생님께서 서 온 연락이었고 ‘수원대학교’에서 진행하려 하는 일을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이었다. 지역 문화예술의 주체에 대한 아카이브 과정에서 교육으로써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본인과 더불어 만물작업소의 이승준 선생님에게 요청된 일이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 정리되지 않은 채 ‘수원대학교’의 첫 포럼인 ‘우리는 서로에게 학교가 될 수 있을까?’에 청중으로서 참석하게 되었다. ‘서로에게 학교가 될 수 있을까’라는 포럼의 주제는 배우고 가르침을 주고받는 주체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이 질문은 ‘서로’라는 지역의 문화예술 주체를 어떻게 호명하고 만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수상한 만남>의 틀을 잡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마주한 것은 거의 모든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에서 듣게 되는 말이었다. ‘사람이 없어요’ 문화예술의 현장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사람’의 부재에 대한 푸념은 현장에서 수없이 마주한 것이었고, 때로는 스스로 습관처럼 내뱉는 말이기도 했다. 문화예술 주체에 대한 아카이브 작업은 ‘사람’을 찾고 ‘서로’를 발견하는 과정이 되었다. 가장 선행했던 작업은 우리가 지역의 문화예술 주체로 호명하여 만나고자 하는 이들의

청년협동조합 뒷북



상을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이미 완성되어있기보다는 과정 안에서 좌충우돌하는 이들, 그렇기에 이제 막 시작하는 이들이어도 좋겠다는 생각과 만남이 설렘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들이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으로 의견이 모였다.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했던 이력들을 찾아서 살피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다. 부재중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 미스터리 스텔러는 ‘설렘’이라는 키워드로 어느덧 첫사랑의 흔적을 쫓는 영화 <김종욱 찾기>와 같은 미스터리 로맨스로 장르가 변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들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요청한 만남은 항상 사전에 공지했던 시간을 훌쩍 넘어 이어졌다. 준비해간 질문들은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졌고 인터뷰 내용이 원고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다의 파도에 밀려 머릿속에서 저 멀리 밀려나 있기가 일쑤였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상냥한 제안(‘낮설여관’), ‘지역을 넘어 세상을 흔들려는 시도의 여정(살롱시소)’, ‘지역과 애정하며 공존하는 존재의 왕청년협동조합 뒷북’, ‘마을의 지지를 받는 예술에 대한 기억(애기똥풀)’, ‘예술을 넘어 사람을 이어가려는 시도(만물작업소)’가 <수상한 만남>에서 마주한 이야기들이었다. 모두가 현장에서 예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는 시도들을 이야기하며 지역 안에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이들이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기만 한 것도 아니었으며, 때로 끊임없는 좌절과 마주해야만 했던 순간들도 있었다. 이들과의 만남은 문화예술 주체에 대한 아카이브 과정이 교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대화의 주체로 그리고 인터뷰어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들 안에는 수많은 경험들과 교훈들이 담겨있었다. 이 순간의 기록을 단 두 사람의 시각과 해석만으로 담아내는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대한 세계관을 담는 이야기들이 페이지 1과 2, 3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수상한 만남>의 두 번째 만남의 형식은 주체들이 ‘서로’ 탐구하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

전문가 칼럼

글 — 윤영욱

프로젝트그룹 번지의 기획자. 문화예술교육자와 시각예술작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일상에서의 예술에 대한 무모한 상상과 게으른 시도들을 최대한 느린 속도로 진행하려 노력 중이다.



낮설여관

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이어진 두 번째 만남은 ‘다른 장르 예술에 대한 이해와 팬심의 탄생(프로젝트그룹 번지와 아웃 오브 캠퍼스)’,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서의 공유했던 예술의 기억(애기똥풀과 초이)’, ‘개인 창작과 협업 창작에 대한 이해와 탐색(행궁 픽처스와 소울크로싱)’, ‘지속가능한 사랑에 대한 탐구(낮설여관과 소요필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만남 속에서 이야기되었다. 그리고 <수상한 만남>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만들어진 자리가 <제3시대 : 기획자의 여정> 안에서 시도했던 ‘대화의 숲’이었다. 사람책의 형식을 빌려 진행된 ‘대화의 숲’은 수원의 문화예술의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과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민이 만나는 자리였다. 취향에서 시작해 사람을 이어가는 독립서점(서른책방)에 대한 이야기, 지역공동체와 연결된 마을을 꿈꾸는 예술(서현덕 설치작가)에 대한 이야기,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도시(꿈틀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아갈 단 하나뿐인 지구(정다정 생활기술전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이야기는 또다시 새로운 이야기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졌다.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 이어갈 수 있을까?

부재중 전화로 시작된 <수상한 만남>은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만남에 대한 생각이 숙제로 남아있다. 바로 문화예술의 현장이 이루어지고 움직이도록 하는 문화예술 행정의 주체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일이다. 행정은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잘 드러나지 않음에도 예술가들과 시민들에게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적대시되고 있는 주체들은 아닐까? 이들을 어떻게 호명하고 수다의 파도 속에서 솔직한 현장에 대한 생각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과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하지만 문화도시를 꿈꾸는 현장에서 이들을 주체로서 호명하고 대화를 기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더 많은 주체들과 그들의 이야기들을 찾아내는 것과 더불어서.

글 — 김성경
로컬매선편집숍 브랜드 디드 대표



‘디드’라는 브랜드의 시작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영감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국 동부와 서부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작은 지역의 소규모 상권에서도 로컬브랜드가 주는 긍정적인 바이브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후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고민이 들었다. 도쿄나 뉴욕에는 많은 로컬브랜드들이 있고, 이 브랜드들은 지역사회와 같이 숨을 쉬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사는 도시 수원에서는 마음에 드는 그런 편집숍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시작해보기로 했다.

함께 ‘This is suwon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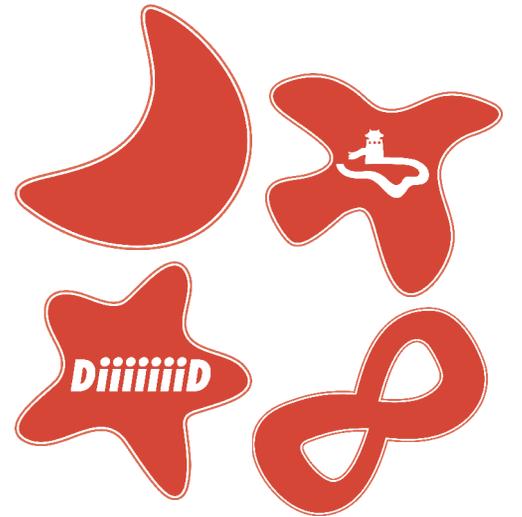
때에 맞춰 나는 그동안 온라인에서만 운영하던 스토어를 오프라인으로 가져와 지역 상권에 결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Did라는 이름은 영문 그대로 내가 해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일을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비전을 담아 쇼룸을 계약한 그 날 수원화성 문화재 중 하나인 화홍문이 떠올랐고, 그 아래 수문이 몇 개인지를 궁금해 세어보게 되었다. 그렇게 화홍문의 7이라는 숫자를 디드의 알파벳 에 동일하게 7개로 적용하게 되었다. 지금의 디드 로고는 방화수류정의 수문을 상징하도록 만들었고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디드’라는 브랜드를 전개하면서 물론 수익 창출이 제1의 목표지만 제2의 목표는 바로 지역상권과의 상생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이 도시 수원을 새롭게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프로젝트는 혼자서 벅찼고, 콜라주 아티스트 선호탄과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짓기까지 오랜 통찰이 필요했다. 어떤 것이 프로젝트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우리를 괴롭혔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 전쟁 당시 장안문이 파괴된 사진을 찾았는데, 거기에 미군이 임시로 세워 둔 표지판 ‘THIS IS SUWON’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디스 이즈 수원’으로 짓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디스 이즈 수원’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스트리트 브랜드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티셔츠로 정했다. 콜라주 기법을 베이스로 티셔츠를 만들었고, 우리가 영감을 받은 장안문부터 과거 패션 중심이었던 남문로데오까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촬영을 시도했고 기록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는 수원시 청년축제 디렉팅에 참여해 아티스트들을 섭외하고 플라마켓 행사까지 개최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은 행사였지만, 애초에 이 프로젝트는 돈보다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로컬브랜드로서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진행했다. 현재 진행형인 이 프로젝트는 이제 네 번째를 맞이했으며, 다시 로컬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수원문화재단의 ‘로컬콘텐츠 사업’에 지원서를 넣었다. 이번에는 수원의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화의 중심인 행궁동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원문화재단 로컬콘텐츠 사업에 참여해

디드를 시작한 이후 약 18개월간 다양한 행사들을 거치면서 디드의 아카이브는 방대해졌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점점 늘어갔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수원시 무형문화재 두 분과의 만남이 성사되었고, 촬영을 진행하며 대단한 분들에게 작게나마 우리의 멋을 담은 재킷을 선물할 수 있었다. 그 재킷에 우리는 디자인적 요소로 수원의 정체성을 담고 싶었고, 멋지게 나타내고 싶었다. 정체성을 위해 수원시의 기존 로고를 재해석했고, 시의 중심인 행궁동의 지도를 새롭게 창작했다. 나아가 수원특례시를 축하하는 의미도 담았다. 촬영지는 우리가 있는 행궁동을 담아냈다. 소재는 가족으로 현재와 과거를 잇기 위해 좀 더 빈티지한 컬러를 찾았고, 클래식한 느낌을 내고 싶어 뎀톤은 네이비 컬러를 사용했다. 클래식하지만 좀 더 스트릿한 느낌을 위해서 강렬한 컬러를 패치로



수원시 로고, 행궁동 지도 샘플링 초안, 프로젝트 안주제 슬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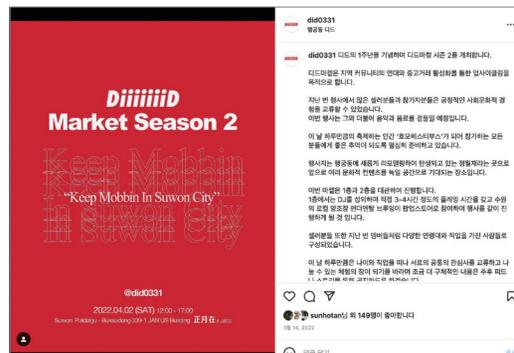
사용했다. 우연하게도 수원문화재단의 ‘로컬콘텐츠 사업’은 마감 전날 알게 되어 시간이 촉박했지만, 운 좋게도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재미가 있었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서 새로운 재미를 찾고, 이러한 경험을 다음 세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디드는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위성이라고 생각한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모든 프로젝트에 사명감을 느끼기보다는 때로는 재미를 생각한다. 이게 재밌을까? 라는 생각부터 이게 재밌겠지. 라는 답으로 이 때문에 로컬콘텐츠 프로젝트 참여는 우리에게 재미와 경험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재미로만 할 수는 없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었다.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모두 완벽하게 구현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했다. ‘로컬콘텐츠 사업’은 공식적으로는 완수되었지만, 비공식적으로 우리는 아직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있다. 끝으로 ‘디드’의 다음 프로젝트는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정해둔 것은 없지만, 로컬브랜드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상생할 수 있는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잘 해내는 ‘DiiiiiiD’가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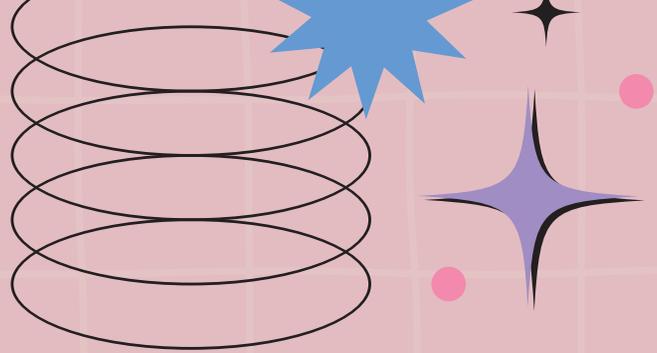
DO(하다, 해내다)의 의미를 담아 화홍문 수문 7개를 의미하는 i 7개가 합쳐진 로고로 탄생



디드마켓 시즌2 관련 게시글 및 포스터



2022년 문화도시 사업 아카이빙 자료



수원이 상상한 만남 수상한만남 vol.1



문화도시 수원 2022 1년차의 기록



2022 수원공공예술 멈추면 생동 아카이브



문화도시 수원 동행공간



<문화 1호선-로컬식탐> 미식랭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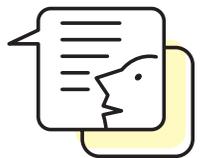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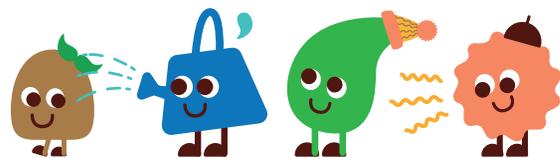


2022 인문도시주간 결과자료집



나눔의 손으로 수원문화예술의 싹을 틔워주세요

문화예술기부 프로젝트 싹ssac은 수원문화재단에서 모금하고 운영하는 기부 프로젝트입니다.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수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아름답고 가치 있는 특권 '기부'로 문화예술관광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월간 문화도시 수원을 보신 소감, 응원의 메시지를 아래의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이야기는 월간 문화도시 수원에 소개하고, 추첨을 통해 기프트콘 등 소정의 사례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monthlswcc@gmail.com
내용 독자후기 한마디, 성함, 사시는 곳(00구 00동), 휴대폰 번호

* 보내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월간 문화도시 수원 발행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필자의 글은 본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